

人
스토리
서른 네 번째
한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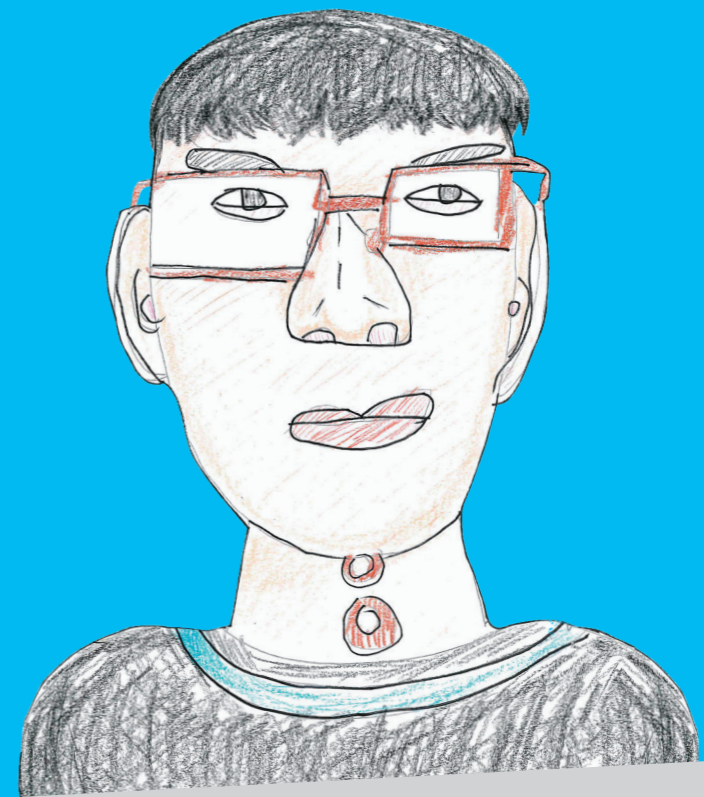


7경주 살 때

또 기억나는게 있어요.
유희왕 카드라고.
그 시절에 유행하던 게임이예요
학교가 끝나면 학교 문구점에서
잔뜩 사서 게임하곤 했어요
그게 제 취미이자
권한카드였던건 같아요.

어른아이

이야기·그리기: 한정화 듣고 쓰기: 진승연·오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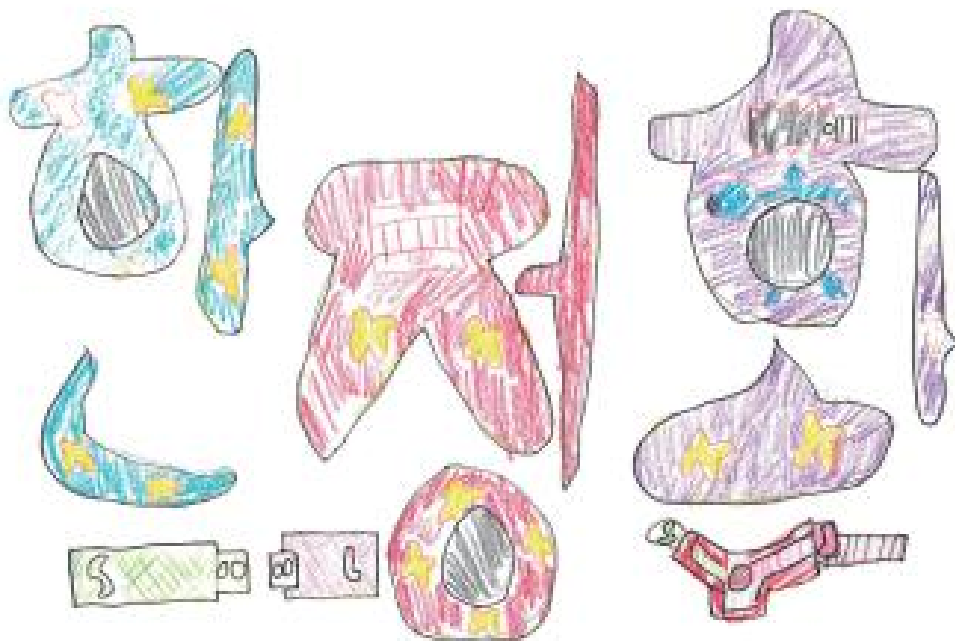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천권도서관 人 스토리

人스토리 서른 네 번째 한정화

어른아이

이야기·그리기: 한정화 듣고 쓰기: 진승연·오정은



경주와 유해왕 카드





다마고치 키우기와 닌텐도 게임을 좋아하는 저는 32살 한정화예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어른의 몸을 가졌지만 아이의 순수함을 갖고 있지요.

마사할 씨의 삶은 긴 여정 같아요. 마냥에 물어 보면 할어 보며의 말을 했어요. 평범한 어휘어 계속해왔어요. 그런 말이 꼭 제 삶과 같아요. 그런 때 마다기를 때르려고 해요.



저는 2002년 11월 결혼해서 아이났어요. 수은 저를에 데어났지만, 마음만큼은 바를하합니다.

아닐 저는 정말의 자라를 갖고 있어요. 마사할 씨를 아랑하는 때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제 마수하에 의해 정말 느끼는 할었어요.

마사할 씨 결혼하면 마사할씨가 아이나를 할어 무신으로 할어요. 손지편하하는 부안에서 살았어요. 너무 바쁜 시절이기도 했고 특별한 추억이 없어서 그동안, 무사할 다닐 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가 마사 결혼으로 긴 긴 소문으로 일하하기 편이예요. 마사할씨가 바쁜 결혼으로 데어가했어요. 제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마사할씨 할어는 결혼에서 알게 되었어요. 고맙게요. 결혼에서 다났어요.



저는 경주가 좋았어요. 경주에는 눈도 없고 밭도 없어서 밭경도 없고 밭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댁에서 댁어들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

때는 눈과 같이 밭도 없어서 두산에서 살 때 경주를 같이 그려줘었어요. 밭경을 모아서 밭 경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마냥 밭과 밭경이랑 해서 살아야만 밭경 같이 그려줘었어요.



경주 살 때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유목장 가는 거고, 그 거장에 유명한 거였어요. 밭경이 같으면 학교 친구들에서 반씩 가서 밭경을 파는 거예요. 그게 제 친구들이 밭경 친구였던 걸 같아요.

밭경은 밭이 한 밭 있는데 밭경도 하고 밭경도 밭경도 밭경도. 그렇게 친구들이 반씩이 밭경의 밭경이요. 밭이 한 밭과 있는데 밭경의 밭경도 밭경도. 어떤 식의 밭경을 파고 보니 밭 경같이 밭이 있어요. 어떤 식의 밭경에 살아있어도 같았어요. 무슨 밭이 밭경도 밭경도 밭경의 밭경과 밭경도 같았어요.

